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 대응 등 척박한 외부환경에 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7월 2일 취임한 이후 신성장 관광벨트인 여수 경도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기능성 화학소재, 2차 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송 청장을 만나 올해로 개청 17주년을 맞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의 괄목할 성과와 미래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미래 신성장 이끌 특화산업 집중 육성”

-곧 취임 100일을 맞는다.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신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7대 광양경제청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세 풍산단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지정, 여수 경도·화양지구 개발 가시화, 포스코케미칼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전지 소재 산업 중심지 육성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의 실적을 발판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개발과 투자유치의 성과를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주민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해결을 최

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회의나 투자설명회 등의 온택트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살펴볼 수 있는 VR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겠다.

-현재 광양만권에 6개 지구 17개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괄목할 성과와 함께 보완점이 있을 것 같다.

▲오는 2027년까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5개소, 산업단지 7개소, 관광단지 3개소와 정주단지 2개소 등 총 17개 단지 59.6㎢(1,806만평)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레지던스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 방침을 정확히 알려 나가고, 다른 이권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과 사실을 적극 설명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도뿐 아니라 모든 곳의 개발과 투자유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다. 기업은 이익을 지역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은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산업에만 의존해서는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력산업 고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양만권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견인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기능성 화학산업, 2차 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을 광양만권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책임질 유망한 엔지니어링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 경도·화양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두우레저단지 조성 사업은 광양만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광양만권이 변화와 발전의 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

기능성 화학소재·2차 전지·수소 등 신산업 주력 철강·석유화학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해 나갈 것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전 직원이 원팀(One-Team)이 돼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투자 유치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환경의식 확산 등으로 대내외 경제,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주력 산업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분야를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책임질 유망·엔지니어링을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양만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통해 중앙부처의 발전 계획과 연계해 신산업 거점화 기반을 마련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유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방법

현재 공정률은 80.5%로 403개 기업을 유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43개 기업, 7,257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1,31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개사, 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 실현과 67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 고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양만권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여수 경도지구와 화양지구는 블루투어 신성장 관광벨트로 조성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삶의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 경도지구와 화양지구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온화한 날씨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휴양을 겸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코로나19 이후 이런 환경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국내 유일의 섬 해

양 복합관광단지 미래에셋 중심의 대규모 자본(1조 5,000억 원 이상)을 유치해 골프장과 콘도, 호텔, 일반 상업시설 등을 갖춘 세계적인 힐링 리조트로 조성한다. 화양 복합관광단지는 해안과 섬, 삼림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특구로 일산해양산업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양면 장수리 등 5개 마을 897만 m²에 약 1조 3,000억 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콘도, 레저,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들 관광단지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안 광역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품 해양관광단지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

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과정에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연륙교 진입로 개설 등을 놓고 사업자와 시민 간 갈등이 노출됐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최근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 시민단체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숙박시설인데도 주택

기업 최적의 투자환경 제공·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여수 경도지구 관광벨트 조성 획기적 삶 변화 기대

소통뿐 아니라 광양경제청과 지자체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협력해 가고 있는지.

▲광양경제청은 전남도와 경남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연합인 만큼 광양만권의 효과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이다. 항상 소통을 활성화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투자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공식적으로 조화회의에 관련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지자체장, 상의회장,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광양만권 발전협의회를 통해 산단 조성 과 관광지구 조성 등 중점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광양경제청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는 물론 '잘 사는 전남'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인가.

▲'경제가치' 이상으로 '환경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를 포스트코로나 경영의 키워드로 강조한다. 현재 광양만권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

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민과 자주 소통하면서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가겠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과도 함께 환경 등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 기업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도 생긴다. 광양만권의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정진달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사진=김생훈 기자

약력

- ▲고흥 ▲전남대 경제학과(33회 행정고시) ▲광주시 자치행정과장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주부센터
어깨/팔목센터
취주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완센트럴병원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SANGMU SU DENTAL CLINIC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www.kshosp.com

KS+ KS병원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인동 양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